

# 북클럽 운영보고서

<b>북클럽 팀명</b>	현비우스							
<b>운영일시 / 장소</b>	일 시 : 2021년 10월 13일( 수요일) / 장 소 : 교동 TOM&TOMS							
<b>참석자 명단</b>	학번	2021	이름	이**	학번		이름	
	학번	2021	이름	이**	학번		이름	
	학번	2021	이름	전**	학번		이름	
	학번	2021	이름	현**				
<b>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b>	<p>“결국 내가 한 얘기 속에 담겨 있는 의미는 그녀에겐 하나도 전달되지 않았다. 피비린내 나는 차 속도, 죽어 넘어진 전우도, 작렬하는 포화 소리도 그녀에겐 모두 활자화된 이야기 정도로밖에 들리지 않았던 것이다.”</p> <p>※ 책 내용 토의 ① : 소설 속의 ‘나’는 약혼자 ‘나미’가 전쟁 중 자신이 느꼈던 생경한 감정에 대한 이야기에 진정으로 공감하지 못하고 훈장을 타게 된 경위와 베트콩을 죽여봤는지에 대해서만 궁금해 하자 크게 불쾌해 한다. ‘나미’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지 이야기 해 보자.</p> <p>I) 나미의 행동은 잘못되지 않았다.</p> <p>이**, 이** : ‘나미’는 전쟁을 실제로 겪지 않았기 때문에 ‘나’가 느낀 감정에 완전히 공감을 해줄 수 없다. 그녀가 ‘훈장’과 ‘베트콩’이야기를 한 것도 약혼자를 위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행동한 것일 것이다. 따라서 나미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능하다.</p> <p>남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선불리 꺼내는 ‘나’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인(이**)은 삼수를 해서 대학에 진학했는데, 친구들과 마음속에 있는 깊은 이야기를 할 때에도 현역들 앞에서는 삼수 시절 겪은 트라우마 같은 것들에 대하여 그들이 공감하지 못할 것을 알기에 일부러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처럼 ‘나’도 전쟁을 겪지 않은 ‘나미’의 입장을 생각해주어야 한다.</p> <p>II) 나미의 행동은 잘못되었다.</p> <p>전**, 현** : 사람들이 마음속에 있는 깊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남들에게 공감을 바라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본인(현**)도 ‘나’와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그걸 남들에게 말하였을 때 ‘그냥 잊고 살면 되는데 왜 이렇게 그 사건에 집착하냐.’라는 반응을 받은 적이 있어 상처가 되었던 적이 있다. 소설 속 ‘나’도 ‘나미’에게 해결책을 바라다거나 형식적 칭찬을 바래서 한 말이 아닐 것이다. 전쟁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묵묵히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나’에게는 충분한 위안이 되었을 것이다. 나미는 공감을 선불리 하였다. 깊은 아픔을 알지 못한 채로 하는 형식적인 공감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p>							

※ 책 내용 토의 ① 끝맺음 질문 : 소설 속 '나미'와 '나'처럼 타인의 입장에 완전히 공감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을 최대한 상처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최선일까?

모르는 분야에 있어서는 선불리 의견을 내기보다는 먼저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충분히 파악해내야 한다. 파악해낸 후에 본인과 생각이 동일하다면, 조언을 해주고, 아니라면 들어주거나 질문을 계속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다. 민감한 이야기를 해야 할 때는 상대방과 본인의 입장이 같은지 모르기에 처음에는 최대한 말을 아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또한 상대를 대하는 태도도 중요하다. 조언을 할 만한 내용이 있다면 조언을 해주겠지만, 그걸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선불리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 상대방이 속에 있는 이야기를 털어 놓을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한다. 상대방에게 고민을 이야기하는 것은 나에게 짐을 떠넘기는 게 아니라 내 앞에 짐을 내려놓고 이 짐을 어떻게 할지 서로 얘기를 나누는 것이라는 인식을 시켜주어야 한다.

2021 년 10 월 13 일

참가자 대표 : 전\*\*

# 북클럽 운영보고서

<b>북클럽 팀명</b>	현비우스							
<b>운영일시 / 장소</b>	일 시 : 2021년 10월 20일(수요일) / 장 소 : 교동 TOM&TOMS							
<b>참석자 명단</b>	학번	2021	이름	이**	학번		이름	
	학번	2021	이름	이**	학번		이름	
	학번	2021	이름	전**	학번		이름	
	학번	2021	이름	현**				
<b>토의 내용</b> (읽은 책을 중심으로)	<p>※ &lt;사막을 건너는 법&gt;책 내용 관련 토의 ② :</p> <p>정신과 의사가 되었을 때, 환자가 어떤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의사를 찾아와 정신 질환의 근원이 되는 사소한 일들을 의사에게 털어 놓는 상황이다. 그러나 환자가 어떤 트라우마에 접근하는 것을 숨기려고 한다. 우울의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그 트라우마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를 환자가 원하지 않고, 치료를 강행하였을 경우, 환자가 더 이상 그 병원을 찾아오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 의사로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자유롭게 이야기 해 보자.</p> <p><b>현** :</b></p> <p>환자가 의사를 믿지 못하여 자신의 트라우마를 털어놓지 않을 수도 있다. 본인이 의사라면 환자가 신뢰하고 있는 지인과 접촉하여 그 지인에게 트라우마를 털어놓는 방향으로 유도할 것이다.</p> <p>본인(현**)의 경험을 예로 들어 보도록 하겠다. 지인 중에 본인이 한 일에 대한 성과가 잘 나오지 않아 우울증이 심해져서, 정신과에서 약을 처방 받는 환자가 있었다. 그는 그 약을 먹지 않고 있었는데, 본인(현**)에게 자신의 힘든 일을 털어놓는 상담을 한 후 힘을 내서 약을 다시 먹기 시작하였다.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치료 뿐 아니라, 환자가 그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기 위한 동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의사에게 처음으로 자신의 트라우마에 대해 상세히 털어놓은 것이 부담스럽다면,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지인에게 이를 먼저 털어놓게 함으로써 다음 단계로 의사의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p> <p><b>이** :</b></p> <p>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선 본인(이**)이 어떤 고민이 있었을 때 고민을 잘 들어준 상대방의 특징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우선 그런 사람들은 먼저 해결책을 제시하기 이전에, 감정적인 공감을 해 주었다. 이러한 감정적 공감과 이해를 환자를 대하는 의사들도 차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의사 또한 환자를 그저 치료해야 할 ‘고장난’ 대상으로 보며 단순히 해결책을 제시하려 해서는 안된다. 환자라는 하나의 ‘인격체’에 대한 감정적 공감과 깊은 이해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본인이</p>							

의사라면, 환자와 비슷한 본인의 경험을 털어놓으며 환자와의 친밀감과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도 좋을 것이다. 본인도 처음에는 트라우마가 있었으나,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털어놓는 과정에서 이를 극복할 수 있었음을 강조하며 환자 자신도 자신의 이야기를 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물론 결코 환자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도록 강요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진심으로 공감하며 환자의 선택을 유도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

트라우마 환자가 의사에게(또는 의사가 아니더라도 타인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트라우마 치료의 가장 중요한 첫 단계이다. 사실 애초에 환자가 의사를 찾아왔다는 것 자체가 트라우마를 치료할 의지가 있는 것임을 의미한다. 의사는 환자의 이러한 치료 의지를 최대한 격려하고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 우선 환자와의 신뢰를 쌓아야 한다. 본인이 의사라면, 환자에게 자신의 트라우마를 털어놓는 것, 그리고 자신의 마음속에 감춰진 이야기를 방출하는 것이 치료 과정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설명할 것이다. 그렇게 환자의 치료에 대한 거부감을 덜어내는 동시에, 환자와 친밀감과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환자가 하고싶어하지 않는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물어보기보다는 가볍고 사소한 이야기부터 경청하며, 환자의 말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전\*\*:**

의사에게 처음부터 환자가 자신의 속깊은 마음을 털어놓을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환자의 트라우마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환자가 자신의 트라우마를 직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환자가 오랜 기간에 걸쳐 마침내 의사에게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선불리 행동하거나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도록 강요하는 방법은 쓰지 않아야 한다. 환자가 꾸준히 병원을 찾아올 수 있도록, 자신의 깊은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을 만큼 친밀한 관계가 되기 전까지는 환자가 스스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을 우선 경청할 것이다. 사소한 이야기부터 시작하며, 환자와의 신뢰를 쌓아나가는 것이다.

2021 년 10월 20일

참가자 대표 : 전\*\*

#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현비우스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1년 11월 1일(월요일) / 장 소 : Campus life center							
참석자 명단	학번	2021	이름	이**	학번		이름	
	학번	2021	이름	이**	학번		이름	
	학번	2021	이름	전**	학번		이름	
	학번	2021	이름	현**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p style="text-align: center;"><b>독서토론 탐구활동</b></p> <p>I. 논제 : 소설 속 노인은 본인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여 현재를 이겨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만약, 실제 트라우마 환자의 치료에도 이러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면, 환자의 동의 없이 이 치료를 진행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타당한가?</p> <p>II. 입장 설정 자현, 채현 : 타당하다. 동준, 서현 : 타당하지 않다.</p> <p>III. 토론 활동</p> <p>① 찬성 측 입론</p> <p>채현) “환자의 권리 중에 치료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정신질환자의 경우 보통 일반 사람들과 같은 정도의 의사결정이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알 권리보다 환자의 치료 받을 권리를 우선시 해야하한다고 생각합니다.”</p> <p>자현) “정신 질환자 같은 경우에는 알 권리를 보다는 치료받을 권리가 더 중요하므로 환자를 치료해야 하는 권리가 더 우선시 되어야합니다. 정신질환자들은 자신이 질환자인지 아닌지조차도 분간을 못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을 무책임하게 내버려 두는 것은 그 사람의 자유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 방종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위 무능력자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권리를 제한하는 헌법이 있습니다. 이는 어린아이가 술이나 담배를 구매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사람이 경제활동을 할 권리를 일부 제한한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처럼 정신질환자 또한 보다 더 큰 공익을 위해 일부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합니다.”</p>							

## ② 반대 측 입론

동준) 현재 환자가 어떤 의사에게 어떤 치료를 받고,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등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목적이 치료였다고 하여도, 정신질환 환자라고 하여도 어떤 치료를 받고있는 지, 향후 어떤 식으로 개선되거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지 등 알 권리가 중요합니다.

서현) 저는 소설 속에 할아버지가 현재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과정이 아니라 회피하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애초에 치료방식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전쟁은 사회 전체가 짊어져야 하는 시대적인 아픔인데, 지금의 상황은 할아버지를 치료할 때 트라우마를 직접 마주보게 하는 것이 아닌 **회피시키는 방법을 선택한 것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사회적 아픔을 **외면**하는 행위라 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환자를 속이는 치료 방식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③ 찬성 측 반론

채현) 서현 씨가 트라우마 치료에 관해서 노인이 자신의 트라우마를 피하고, 이에 제대로 맞서지 않는 것이므로 긍정적인 치료가 아니라고 하였는데 저는 이 노인이 트라우마를 회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노인은 이미 정신이 심하게 붕괴되어 있어 지금처럼 가상의 상황마저 설정하지 않았더라면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저희 토론 주제가 트라우마 치료법 자체가 **효과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알 권리 측면에서 토론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부정하는 서현씨의 입론은 **논제에서 벗어난 것** 같습니다.

자현) 동준씨는 환자의 알 권리의 중요성을 말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경우의 환자에 대한 것입니다. 정신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문제만 있는 사람은 무리없이 스스로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신질환자의 경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스스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에는 강행을 해서라도 치료를 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④ 반대 측 반론

서현) 자현씨의 이야기 중에 ‘치료를 강행하지 않는 것’은 정신질환자가 상태를 모르는 상황에서 ‘무책임하게 내버려두는 행위와 동일하다’고 했는데 이는 토론 논제와 맞지 않습니다. 저희의 입장은 ‘이 치료방법이 잘못되었다’이지 ‘**방임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현씨가 헌법 상에서 행위 무능력자의 권리를 일부 침해하는 것이 공익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는데 애초에 트라우마 환자는 행위 무능력자라고 분류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트라우마 환자가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동준) 자현씨가 행위 무능력자에 대해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이에 대해 반박하자면, 논제가 ‘환자를 속이면서 까지 트라우마 치료를 강행해야 하는가?’라는 질문 속에 그 자체가 환자의 의지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환자가 행위 무능력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만에 하나 행위 무능력자라고 해도, 일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그 법률의 내용이 아닙니다. 일부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경우는 이 환자가 공익을 침해했다는 것 등의 3가지 항목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그 상황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어린이가 술을 못사게 하는 것은 **소년법**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이 아이가 의사결정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진짜 주된 목적은 **성장발달 측면**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현씨의 해당 발언은 문맥에 어긋난 발언이라 생각합니다.

#### ⑤ 찬성 측 최종 발언

동준씨의 의견 중에 ‘다른 치료법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억지로 환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치료를 해야 하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토론에서 이미 다른 치료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이는 논제에서 벗어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서현씨가 반론에서 행위 무능력자는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기에 행위 무능력자인데 소셜 속 할아버지는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행위 무능력자에 해당하지 않기에 치료를 강행할 이유가 없다고 했는데, 그 이유라면 행위 무능력자인 어린이도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기에 아무런 제약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는 더 큰 안전을 위해 아동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준씨가 소년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는 청소년들이 담배나 술을 구매하지 못하는 것은 침해인 동시에 보호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권리가 더 큰 목적을 위해 침해받는 그 예시를 들고자 사용한 것이지 소년법인지 행위 무능력자에 관한 법인지를 정확히 따지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⑥ 반대 측 최종 발언

채현씨의 발언 중에 노인은 트라우마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트라우마로 인해 모든 걸 포기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래로 나아가는 중이라고 말했는데, 사실 할아버지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매일같이 훈장을 강에서 찾는 무의미한 행위를 반복하는데 과연 이것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인가요?

자현씨의 발언 중, 알 권리가 일반적 환자에게는 적용되지만 의사 결정 불가능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다는 발언은 문제가 있습니다. 애초에 알 권리를 부정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치료를 강행하는 것이, 실제 사례를 들자면, 정신과 의사의 사례를 살펴보았을 때, 알코올 중독자 환자가 내원을 해서 감금치료를 강행한 예시가 있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는 의

사무능력자기 때문에 보호자가 이 환자를 풀어줄 것을 요구했고 결국 와이프가 가정폭력으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의사 마음대로 치료를 강행하는 것은 법률상으로 불가능하고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통념이나 감정적인 것에 의거하여 결론을 도출하면 그것이 초래할 부정적인 결과가 있기 마련입니다. 또한 법률 자체가 이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현씨의 이 주장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III. 토론 후 논의

#### 1. 잘한 점

:

#### 2. 개선점

①논제와 전제, 상황설정이 명확하지 않았다.

->트라우마에 대한 다른 치료법이 존재하는 상황인지를 정확히 정하고 토론하는 것이 좋았을 것 같다.

②쟁점을 정확히 정하지 않았다.

->알 권리와 치료할 권리 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논의하는 토론이었는데, 쟁점이 명확하게 서지 않아서 토론이 다른 곳으로 쏘였다. 다음번에는 더 명시적으로 쟁점을 확립할 것이다.

③주관적인 근거가 많았다.

->다음번 토론에는 통계자료와 같은 정량적인 수치자료를 준비할 것이다.

2021 년 11 월 1 일

참가자 대표 : 전\*\*

#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현비우스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1년 11월 10일(수요일) / 장 소 : 교동 TOM&TOMS							
참석자 명단	학번	2021	이름	이**	학번		이름	
	학번	2021	이름	이**	학번		이름	
	학번	2021	이름	전**	학번		이름	
	학번	2021	이름	현**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p>※ 책 내용 토의 ① : 소설 &lt;병신과 머저리&gt;에서 형은 본인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 전쟁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소설을 쓰는 등의 방식으로 노력한다. 이러한 형과 달리 동생은 본인의 트라우마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며 그냥 미뤄두고 순응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한다. 둘 중 누구의 방법이 옳다고 생각하는가?</p> <p>I) 형의 방식이 옳다고 생각한다.</p> <p>이**, 이** : 동생의 소극적인 트라우마 대처 방식은 좋지 않다. 사람은 자신의 트라우마를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결국엔 그것을 마주해야만 극복할 수 있다. 누구나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아가며, 그것의 극복 여부는 개인이 얼마나 본인의 트라우마를 과거의 것으로 제쳐두고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는 용기를 내는지에 달렸다. 트라우마가 작용하는 원리는 진화생물학적으로 위험 상황을 적절히 회피시키기 위한 뇌의 작용이다. 예를 들어 뱀을 보고 물렸던 기억을 통해 추후에 뱀과 비슷한 동앗줄을 보고도 트라우마가 작용하여 상황을 회피할 수 있어 개체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트라우마가 원치 않는 상황에서도 발현되어 오히려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이런 경우에 현대 의학에서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방법은 트라우마 상황의 단서를 약한 수준부터 서서히 강도를 높여가며 개체를 트라우마 상황에 적응시키는 것이다. 트라우마를 서서히 마주할 수 있게 되어야만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다. 그러나 무작정 회피하려고 하면 그 순간에는 편하겠지만 끝내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하고 회피만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동생의 트라우마 대처 방식을 옳지 않다.</p> <p>동생의 대처가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직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트라우마 치료는 환자의 편도체에 저장된 억압된 기억을 '방출'시키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자신의 이야기를 다른 이에게 들려주고 공유하는 것, 또는 그것을 글로 풀어내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법이 될 수 있다. 형은 바로 이러한 '방출'을 몸소 실현하고 있기에 비교적 옳은 행동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동생은 이를 끝까지 회피하려는 태도를 취한다. 동생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도 자신의 상처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병의 원인을 알지</p>							

못해서 안 된다.

**II) 동생의 방식이 옳다고 생각한다.**

**전\*\*** : 동생은 트라우마를 겪고 있지만 형과 달리 “전쟁”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아니며 그가 겪고 있는 트라우마는 일반인도 충분히 겪을 수 있을 법한,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다. 동생은 그의 연애 상대를 놓쳐버린 것에 상심하고 있으나 이를 적극적으로 극복하려 하지 않는다. 이 방법이 무조건 옳은 것이라고 권장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나는 개인에게 발생하는 모든 문제가 꼭 완벽하게 해결되는 것만이 바람직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어떤 문제들은, 특히 인간관계에서 발생한 문제들은 그저 덮어두고 시간이 흐르게 내버려두면 알아서 무뎌지고 잊혀진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소극적인 방식도 동생이 그의 문제에 맞서기 위해 택한 하나의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형보다는 동생에 가까운 사람이라 그의 방식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II) 경우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한다.**

**현\*\*** : 사람의 성향 차이라 생각한다. 나같은 경우 어릴 적 길을 걷다가 지나가는 행인에게 외형적인 비하를 듣고 나서 길을 걸을 때 이어폰으로 귀를 막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를 욕하는 거 같다는 생각에 사로잡힌다. 나는 그래서 이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 일부로 신촌이나 강남역 근처에 이어폰 없이 걸어보는 연습을 하면서 지금은 좀 극복해냈다. 하지만 다른 누군가는 자신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 이런 식으로 맞서는 식의 방식을 선택하면 오히려 공포감이 더 커져 증상이 악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는 개인의 상처의 크기, 개인의 성향에 따라 어떤 것이 옳게 작용할 지는 다를 것이라 본다.

2021 년 10 월 13 일

참가자 대표 : 전\*\*

#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현비우스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1년 11월 17일( 수요일) / 장 소 : 교동 TOM&TOMS							
참석자 명단	학번	2021	이름	이**	학번		이름	
	학번	2021	이름	이**	학번		이름	
	학번	2021	이름	전**	학번		이름	
	학번	2021	이름	현**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p>※ 책 내용 토의 ② : 형은 마스크를 다시 잡으려는 의지를 가지고 본인의 트라우마를 극복하려고 노력한다. 동생은 그런 형을 보면서 형은 트라우마를 결국 극복할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정작 본인은 트라우마를 앞으로도 극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관하며 소설은 끝이 난다. 이런 결말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지에 대해 생각해보자.</p> <p>현** : 동생은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지만 자신만의 방식으로 결말을 지으며 극복하려는 형에게 '병신새끼'라고 욕을 하고, 형은 화실에서 가만히 있으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동생에게 '머저리'라 부른다. 병신은 남을 비하할 때 쓰는 말이기도 하지만 사전 첫 번째 정의로 보면 '신체의 일부에 결함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정신적 상처가 있는 형에게 작가는 병신이라는 호칭을 부여하는데 이때 병신은 동생이 형을 비하하기 위해 욕으로써 사용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작가는 형은 정신적 상처를 품고 산다는 의미로 사전적 정의의 병신이라는 호칭을 형에게 부여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머저리는 신체적 결함과 무관하게 말이나 행동이 어리석은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로 동생에게 머저리라는 호칭을 부여한 것은 여타의 해석 여지가 없이 비하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 즉, 작가는 상처를 가지고 있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노력하는 사람을 더 가치있는 사람으로 여기고 있고, 이를 독자에게 암시하기 위해 그러한 결말을 썼을 것이라 생각한다.</p> <p>이** : 이 소설은 상처를 대하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유형을 보여준다. 형은 자신의 트라우마를 소설에 녹여내는 방식을 통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상처에 맞서려 하는 반면, 동생은 자신의 그것을 방관자적 태도로 방치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결국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것이 형이라는 것으로 보아 작가는 상처를 이겨내는 첫걸음이 그것을 인정하고 똑바로 쳐다보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또한 현실에서 오관모를 다시 마주친 형은 그가 살아있는 이상 소설을 통해 과거를 회피할 수 없음을 깨닫고 소설을 모조리 태우는 장면이 나온다. 이 또한 결국 상처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현실을 맞닥뜨려야 한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다.</p> <p>이** : 나는 결말이 가지는 의미를 형과 동생의 트라우마 대처방식에 따</p>							

른 극복여부를 드러내고자하는 작가의 의도에 의한 것으로 본다. 헤인과 헤어진 트라우마를 앓고 있음에도 형처럼 자신의 트라우마를 극복할 의지도 없이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동생은 결국 어떠한 극복도 보여주지 못한다. 이런 그에게 상처의 치유는 허락되지 않을 것이다. 아마 작가는 형과 동생의 트라우마에 대한 태도차이를 부각하고자 이러한 결말을 고안했을 것이다.

**전\*\*** : 이러한 결말을 내린 작가의 의도는 형의 방식이 옳다고 말하기 위험이라고 생각한다. 소설에서 작가는 적극적인 극복 의지를 가진 인물과 내면의 상처에 굴복해 무기력하게, 혹은 소극적인 의지를 보이는 인물을 대비시킨다. 이를 통해 작가는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방법은 본인의 적극적인 의지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2021 년 10 월 13 일

참가자 대표 : 전\*\*

# 북클럽 운영보고서

<b>북클럽 팀명</b>	현비우스							
<b>운영일시 / 장소</b>	일 시 : 2021년 11월 24일( 수요일) / 장 소 : 교동 TOM&TOMS							
<b>참석자 명단</b>	학번	2021	이름	이**	학번		이름	
	학번	2021	이름	이**	학번		이름	
	학번	2021	이름	전**	학번		이름	
	학번	2021	이름	현**				
<b>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b>	<p>※ 책 내용 토의 ③ : 소설 &lt;병신과 머저리&gt;의 “형”과 소설&lt;사막을 건너는 법&gt;의 주인공은 둘 다 전쟁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 그러나 그 둘의 트라우마 대처 방식은 다르다. 둘 중 누가 더 트라우마를 잘 극복했다고 생각하는가?</p> <p>이** : 병신과 머저리의 형이 트라우마에서 조금이나마 더 벗어났다고 생각한다. 형은 자신의 이야기를 소설로 쓰면서 그것을 똑바로 직시하려 하기 때문이다. 형은 현실의 어려움을 소설 쓰기를 통해 능동적으로 치유하는 것이다.</p> <p>그러나 사막을 건너는 법의 주인공 또한 결국은 트라우마를 극복할 가능성이 크다. 결말은 주인공이 노인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것으로 끝난다. 이 깨달음이란 허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삶의 목표-그것이 설령 의미가 없는 것일지라도-를 설정하고 그것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인공은 이러한 깨달음을 바탕으로 차츰 트라우마와 허무를 극복하고 계속해서 살아 나갈 것이다.</p> <p>전** : 결말부의 상황만 생각한다면 &lt;병신과 머저리&gt;의 형이 조금 더 극복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lt;사막을 건너는 법&gt;의 주인공도 결국 트라우마를 극복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노인의 열의를 보고 마음속의 무기력감으로 뒤덮인 “사막”을 “건너는 법”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사람마다 개인의 문제를 극복하게 되는 계기는 모두 다르며 어떠한 행동을 취하는지의 여부에 의해 극복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p> <p>현** : 사막을 건너는 법의 주인공인 '나'는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다. 전쟁터 속에서 살아오다가 너무 태평한 일상으로 돌아오고 나서 무기력함에 하루하루를 보내던 주인공 '나'는 스스로를 속여가며 살아갈 이유를 만들어가는 노인을 보고 깨달음을 얻고 소설이 끝난다. '병신과 머저리의 형'은 소설을 쓰고, 자신만의 결말로 소설을 마무리하며 트라우마에서 벗어나려 한다. 물론 바로 벗어나진 못했을 지라도 언젠가 전쟁에 대한 기억이 익숙해져, 혹은 무뎌져 극복해 나갔을 것이다. 따라서 나는 병신과 머저리의 형이 트라우마를 더 극복</p>							

했다고 생각한다.

이\*\* :병신과 머저리의 형은 트라우마를 극복한 것으로 보인다. 전쟁으로 인한 트라우마 때문에 의사로서의 행보를 잠시 멈췄던 형은 결말부에서 다시 수술대에 오를 용기를 얻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렇기에 형은 자신의 트라우마를 진정으로 마주하고, 극복하여 원래의 삶으로 복귀할 수 있었다고 보여진다.

※ 책 내용 토의 ③ 끝맺음 질문 :

2021 년 10 월 13 일

참가자 대표 : 전\*\*